

肉類의 流通改善과 價格安定政策

許 信 行

首席研究員, Ph.D.(農業經濟學), 農政研究室

이 글의 목적은 뒤떨어진 우리 나라 肉類流通構造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불안정하기만 한 肉類價格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살펴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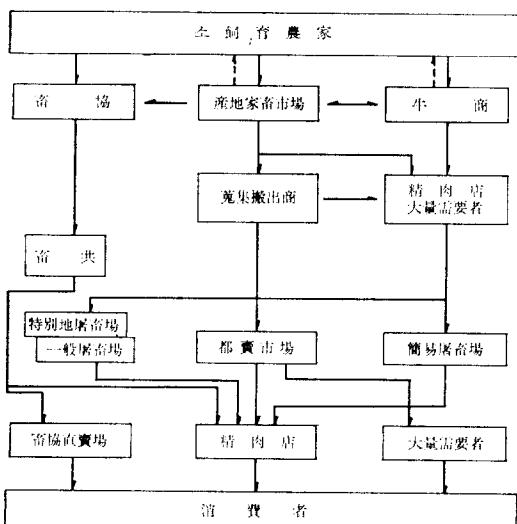
우리 나라의 肉類流通發展過程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종교적으로 儒教와 佛敎의 지배를 받아온 우리 민족이 家畜을 도살하고 처리하는 직업을 천하게 생각해 옴으로써 이 분야에 균대화의 바람이 좀처럼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流通人們은 사회로부터 천대받은 代價까지 補償을 받게되자 경제적인 合理主義의 추구보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因習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타성에 젖게 되었다. 그만큼 肉類流通近代化的 과제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肉類流通發展이 뒤처진 또 하나의 이유는 穀物 중심의 食生活 패턴과 家畜飼育規模의 零細性에 있다. 쌀과 보리 감자를 중심으로 한 主食과 채소를 중심으로 한 副食이 우리 食生活의 대부분을 차지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畜產物生產이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專業形態로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이다.

耕種農業을 위한 補助手段으로 또는 農家副產物을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는 副業形態의 家畜飼育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市場經濟를 향한 축산이 육성될 수 없었다. 따라서 생산농민의 적극적인 販賣活動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고 流通人の 앙이한 利潤追求行爲가 市場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다.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肉類流通분야에 유능한 人材가 뛰어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보니 이 분야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서도 유통개선의 당위성에 대한 무성한 주장만 난무할 뿐 현실은 옛날의 상태를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肉類流通近代化를 이루는 과정에서 생산자나 소비자와 같이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직접 앞에 나서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있는 관리가 肉類流通과 관련된 모든 변수를 충분하게 연구 분석함이 없이 당면문제 해결 위주로 流通問題를 다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肉類流通改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먼저 肉類流通構造의 實狀을 살펴보기로 하자.

圖 1 韓牛 및 쇠고기의 流通經路



肉類流通構造의 實狀

肉類流通의 構成要素가 무엇이며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流通經路를 추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우 및 쇠고기의 流通經路를 <圖 1>에서 살펴보면 농가에서 役用으로 기르는 소는 대부분 產地家畜市場을 통해 萬集搬出商과 都賣市場 그리고 精肉店 경유 소비자에 이르고 있다. 農協이나 畜協의 會員이 系統出荷하는 소는 家畜繁留時間이 거의 없고 檢查機能이 미약하여 어떤 소라도 屠畜이 용이해서 屠畜依賴者の 수익이 그 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誘因으로 인하여 대도시의 일부 소매상은 고유의 小賣業에 전념하는 대신 產地市場에 출장하여 生牛購入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가 法의 망을 피할 때 이윤의 폭이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더욱이 小賣商이 都賣市場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 연말에 가서 綜合所得稅가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이에 놀란 소매상들은 자연히 稅金分散方法을 찾게되고 地方肉搬入에 눈을 돌리게 됨으로써 都賣市場 이용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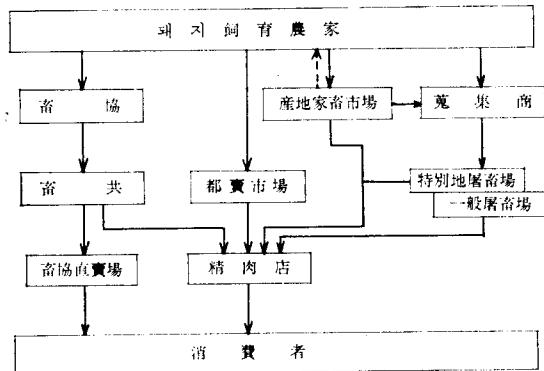
이와 같이 소의 경우 생산자나 소매상 모두의 입장에서 볼 때 都賣市場이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소 사육이 대규모로 전문화되고 綜合所得稅가

소 飼育農家の 規模가 1979년 호당 평균 1.4頭로 매우 零細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遠距離 都賣市場을 직접 이용할만한 誘因이 없는 데에 있고, 產地市場의 소 가격이 都賣市場에서의 受取價格보다 높다는 데에 있다. 2~3년만에 모처럼 소 한 마리를 팔기 위해서 몇 배리 떨어진 都賣市場을 찾는다는 것은 그에 따른 비용을 고려할 때 오히려 非經濟的일 수도 있다. 그리고 都賣市場 가격이 產地市場 가격보다 낮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일부 소매상이나 중간상인들이 肉質이 좋은 소를 골라 웃돈을 주고 구입하여 지방에서 屠畜, 유통한 조건으로 반입해 오기 때문이다.

屠畜場을 이용하는 중간상인들이 都賣市場보다는 一般 内지 特別地屠畜場을 더 選好하고 있는 이유는 諸稅를 포함한 費用이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一般・特別地屠畜場에서는 家畜繁留時間이 거의 없고 檢查機能이 미약하여 어떤 소라도 屠畜이 용이해서 屠畜依賴者の 수익이 그 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誘因으로 인하여 대도시의 일부 소매상은 고유의 小賣業에 전념하는 대신 產地市場에 출장하여 生牛購入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가 法의 망을 피할 때 이윤의 폭이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더욱이 小賣商이 都賣市場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 연말에 가서 綜合所得稅가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이에 놀란 소매상들은 자연히 稅金分散方法을 찾게되고 地方肉搬入에 눈을 돌리게 됨으로써 都賣市場 이용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의 경우 생산자나 소매상 모두의 입장에서 볼 때 都賣市場이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소 사육이 대규모로 전문화되고 綜合所得稅가

圖 2 奶牛 및 奶牛고기의 流通經路



없어져서 購入者가 두려움 없이 都賣市場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圖 2〉에서 奶牛와 奶牛고기의 流通經路를 살펴보자. 奶牛의 流通經路는 소의 그것보다 비교적 단순하다. 대도시 근교에 위치한 專業養豚家들은 대부분 都賣市場을 직접 이용하고 있으며, 耕種農家가 副業으로 양돈을 하는 경우 이들은 주로 產地市場에 출하하거나 蔊集商을 상대로 판매한다. 蔊集商을 통해서 거래된 奶牛는 대부분 一般・特別地屠畜場에서 분해되어 지방 또는 대도시 중간상이나 정육점으로 판매되어 간다. 또 하나의 큰 경로는 畜協의 系統出荷인데 畜共에서 분해되어 畜協直賣場이나 일반 정육점으로 흘러간다.

최근 養鷄業에 이어 餻豚業에서도 專業化가 크게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농가와 수집상 사이에 目測去來가 옛날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 여기서 物量마진이 발생하고 蔊集商은 需要獨寡占化되고 있어서 농가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豚枝肉流通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地方豚枝肉搬入에 의한 類似都賣市場의 확장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流通不條理이다. 이들 地

方肉은 우선 非衛生的으로 반입된다는 데에 경제 이전의 문제가 있고, 稅源이 포착되지 않는다는 데에 衡平의 문제가 있으며, 都賣市場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流通마진이 크다는 사실도 생산자나 소비자를 위해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다.

都賣市場에 출하하는 생산자들의 면접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枝肉生產收率이 떨어지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都賣市場의 평균 枝肉率이 60~63%인데 실제 실험결과 枝肉率이 65% 내외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枝肉率은 生豚의 繫留時限과 반비례적으로 변동하지만 평균적으로 마리당 2kg 내외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믿고 있다.¹ 이러한 枝肉收率 차이는 繫留過程에서나 分解過程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飼育者 입장에서 이 차이가 누적되는 경우 그 손실은 작은 것이 아니다.

소의 경우에도 문제의 성격은 비슷하지만 都賣市場에서 奶牛 副產物과 그 평가액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頭・內臟을 枝肉量의 21%로 환산시키고 있는 데에 별 문제는 없지만 部位別로 일정기간 隨意契約하여 固定價格으로 精算하고 있는 것이 需要獨占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이 不合理한 去來가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출하자의 손 실형태로 나타나는 한 건전한 유통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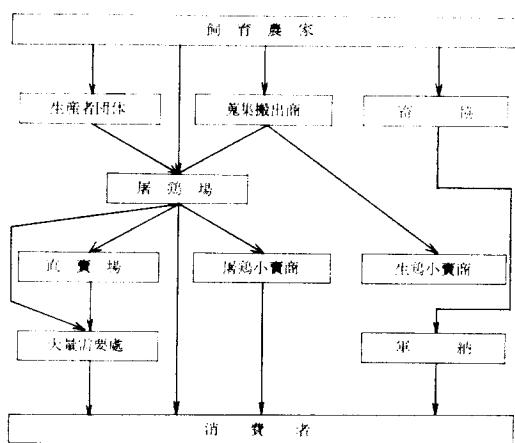
小賣段階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통문제는 都賣段階에서 나타난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고 해결의 전망도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먼저 대부분의 精肉店이 쇠고기와 奶牛고기만을 취급하고 있어서 매우 영세하다. 서울의 경우 정육점당 대략 월평균 소枝肉 7頭 내외와 奶牛 18頭 내외를 판매하고 있는 셈이어서 정상대로 판매한다

면 각종 비용을 포함한 월수익이 100萬원을 조금 초과할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규모의零細性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각종 유통부조리가 자행되고 있다.

小賣段階 流通不條理의 하나는 輸入枝肉이 韓牛肉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輸入枝肉의 公賣價格이 韩牛肉의 競落價格보다 kg 당 1,900원 정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韩牛肉으로 둔갑되어서 팔린다면 부당한 마진의 취득이 아닐 수 없다. 더우기 直賣場에서 팔리고 있는 輸入쇠고기를 정육점들이 근당 100~200원 더 불려주고 구입해다가 再小賣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綜合所得稅源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都賣市場에서 枝肉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소비자보호라는 차원에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小賣段階에서 균원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과제는 肉質의 等級에 따른 價格差等制의 실시라고 지적할 수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에는 여러 가지의 等級이 있다. 안심과 등심 같은 부위는 肉質이 매우 좋아서 대부분의 소비자가 값을 더 지불하더라도 사먹고자 하는 그런 육류이다. 그러나 사태, 양지, 갈비 같은 부위는 질이 떨어져 소비자가 값을 낮게 지불하려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형식상으로는 等級에 따른 價格差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등급에 따른 價格差等이 책상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안심 등심을 필요로 하는 식당이나 대량수요처가 정육점들을 방문, 소매가격의 10% 정도 프리미엄을 주고 이를 질좋은 고기를 수집해 간다. 이러한 현실을 합리적으로 양성화시키면 등급에 의한 價格差等制가 점진적으로 정착되어 나갈 것이다.

圖 3 鷄 및 鷄고기의 流通經路



다음에는 鷄 및 鷄고기의 流通經路를 〈圖 3〉에서 살펴보면 서울 근교의 경우 사육농가로부터 菲集搬出商이 生鷄를 구입, 生鷄小賣商에게 판매하는 경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서울 이외의 대도시에서는 菲集搬出商이나 生產者團體가 屠鷄場을 경유 直賣場이나 소매장에게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肉鷄流通過程에서 都賣市場의 어떤 형태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만큼 肉鷄의 流通이 제 쿠도를 찾지 못한 채 혼돈 속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근교의 경우 菲集搬出商이 개별 양계농장을 방문, 구매가격과 물량을 제시하여 생산자는 선택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물론 생산자가 菲集商 한 사람만을 상대로 거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비해서 菲集商은 다시 여러 양계장을 상대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取捨選擇의 여지가 더 크다. 더욱기 시장정보에 관한 한 생산자보다 중간상인이 더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육계시장은 생산자 중심의 市場이 아니라 중간 상인 중심의 市場이라 말할 수 있다.

首都 서울에서 가장 심각한 肉鷄流通問題의 하나는 절반 이상의 肉鷄販賣가 屠鷄아닌 生鷄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따지고 보면 사회 밑바닥까지 스며든 不信風潮로부터 연유된 것이다. 生鷄를 눈으로 확인해야 衛生鷄로 믿고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위생적인 屠鷄品이 발전되지 못했고 또 어떤 생산단체나 유통인도 위생적인 屠鷄品開發과 판매촉진을 위해 헌신하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商街 골목에서 生鷄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매우 불결하고 근대 도시민의 생활 발전에 역행하는 생닭 처리로 인하여 판매 촉진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屠鷄도 판매과정에서 非衛生的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市場 주변에서 木板 위에다 屠鷄를 올려 놓고 팔고 있는 모습은 차라리 生鷄보다 더 못한 인상을 주게 된다. 언제 屠鷄된 것인지가 불명확하고 腐敗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넣지는 않았는가 불안하기도 하다. 극단적인 생각으로 변질된 屠鷄를 사다가 먹고 食中毒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책임질 만한 회사나 사람을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소비자는 전 근대적인 줄 알면서도 生鷄를 찾게 되고 生鷄流通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음으로써 이 분야의 발전이 뒤쳐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惡循環이라 부를 수 있다.

肉類流通의 改善方向

肉類의 流通問題는 먹는 것과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동물을 처리하는 분야이고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고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선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

다. 더우기 肉類를 사이에 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肉類流通問題의 핵을 이루고 있어서 이들의 생각에 합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肉類流通을 개선하려는 자세가 너무 급진적일 경우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실을 토대로 점진적인 개선을 모색하되 장기적인 안목을 벗어나지 않기로 한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관한 한 기존의 都賣市場과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都賣市場이 주축이 되어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都賣市場이 없으면 유통단계가 하나 줄어 마진이 작고 유통기능이 더욱 효율화 될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지만, 都賣市場 없이 무질서했던 지난 오랜 역사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배운 바가 많기 때문에 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都賣市場이 제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綜合所得稅制가 도매과정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所得稅는 納稅義務者에게所得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런데도 도매시장에서 소나 돼지의 枝肉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소득의 발생으로 간주,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말에 가서는 綜合所得稅까지 계산하여 추징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유통인이나 출하자들은 세금공포증에 걸려 있는 판국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都賣市場의 利用度를 높이려 노력할 것이고 손쉬운 密搬入의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都賣市場에서 枝肉을 매입하는 행위 자체에서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매입해 들인 枝肉을 精肉으로 바꾸어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매점포 운영비를 제외하고 남는 것이 바로소 소득화되

는 것이다. 가능성에서 말한다면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소매점에 따라 같은 무게의 한 마리를 팔아도 소득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면 한 채 都賣市場에서 牛 내지 豚枝肉을 매입하는 소매상은 누구나 일률적으로 소 한 마리에 2만원, 돼지 한마리에 2,500원을 징수하고 연말에 가서 綜合所得稅를 추가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상인들이 도매시장 이용을 기피하게 된다.

都賣市場 이용의 기피현상은 필연적으로 類似都賣市場의 활성화 형태로 나타나거나 地下經濟로 자취를 감추어 버리거나 할 것이다. 그만큼 稅源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流通不條理가 乘數의으로 가속화되리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다. 더우기 衛生問題는 공공기관의 통제밖에 놓이게 됨으로써 유통비용이나 세금을 떠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경제 이전의 중대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小賣段階에서 稅源을 포착하는 것에 비하여 총 徵收額도 작을 뿐만 아니라 肉類流通의 발전을 저해시켜 국가적인 입장에서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와 같이 都賣市場에서의 課稅(특히 綜合所得稅)을 지양하고 小賣段階로 전환시켜 都賣市場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都賣市場에서의 課稅問題가 해결되면 소매상이 產地市場에 나가 生畜을 구입 枝肉化해서 반입해 들이는 번거로운 행위를 지양하게 될 것이고 小賣業에만 전념함으로써 產地의 生畜價格이 都賣市場價格보다 높다는 奇異現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소비자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類似都賣市場이나 地下經濟가 줄어들고 小賣業의 근대화가 쑥트기 시작할 것이다.

輸入쇠고기와 관련하여 시급하게 개선되지 않

으면 안될 유통문제는 輸入肉과 國內產牛肉을 어떻게 완전히 격리시켜 價格差別政策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 冷凍된 輸入枝肉이 都賣市場을 통해서 공매되고 있는데 韓牛肉과 비교하여 枝肉 kg 당 1,900원 정도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輸入肉과 韩牛肉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肉質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輸入肉이 韩牛肉으로 둔갑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만일 輸入肉이 韩牛肉으로 둔갑했을 때 소비자는 枝肉 kg 당 1,900원 이상을 부당하게 지불해야 하는데 이런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輸入肉을 國內產牛肉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야 한다.

輸入肉을 國내產牛肉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流通經路를 다르게 설정해야 하고 輸入肉을 잘라 등급별로 포장, 판매해야 할 것이다. 부위별 등급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하므로 먼저 등급을 불고기, 장조림, 국거리, 갈비, 간고기 등 용도별 기준을 설정시켜 이에 따른 肉質을 구분, 가격을 차등있게 붙여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서서히 안심, 등심, 우둔살, 대접살, 앞다리살, 사태, 양지, 갈비, 등 부위별 등급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輸入肉을 컷트 등급 포장하는 작업은 畜協이나 韓冷 등 公信力を 가진 단체나 회사가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해야 하고 소매는 畜協直賣場이나 슈퍼마켓 또는 연쇄점 등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곳이면 좋다.

이제 都賣市場을 중심으로 한 유통문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자. 앞에서 지적했듯이 소의 경우 사육농가의 零細規模로 인하여 생산자에 의한 都賣市場의 이용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소매상들도 都賣市場보다는 一般・特別地屠畜場

을 더 선호하고 있다. 都賣市場은 현재 서울에 3개, 부산에 2개, 대구에 1개, 대전에 1개 있으나 앞으로 각 道所在地에 都賣市場 1개 정도를 세우고 나머지 中小都市 또는 郡所在地에 현대 시설을 갖춘 屠畜場을 1개씩 만들거나 개축한다음 나머지 屠畜場을 합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屠畜手數料나 각종 부과금 都賣市場에 준해서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家畜의 繫留나 檢查도 都賣市場에서와 똑같이 실시하여 屠畜過程에서 생기는 각종 부조리를 제거하고 전국적으로 衡平을 유지해 나간다면 惡貨가 良貨를 驅逐하는 형태의 유통문제는 없어질 것이다.

都賣市場의 家畜分解過程이나 副產物處理過程에서 생기고 있는 몇 가지 부조리 또는 非效率性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正道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 正道란 생산자조합이나 단체가 肉類流通에 직접 뛰어들어 기존의 都賣市場과 경쟁하면서 각종 유통기능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생산자 단체에 의한 蒐集, 等級, 包裝, 競賣 등 都賣過程까지의 일체 유통기능이 자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일단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회원은 자기의 생산물을 자체 도매시장에 의무적으로 출하하게 되며 생산자대표로 구성된 理事會에 의해서 운영지침이 마련되고 전문경영인을 고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맡기며 운영의 實費를 제하고 나머지 잉여금은 매월 회원에게 이용고에 따라 배당된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자 조합이나 단체에 의해 유통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養鷄와 養豚 分野(酪農도 마찬가지이지만)이다. 肉鷄와 肉豚의 경우 생산자단체가 기금을 마련, 직접 屠畜場이나 屠鷄場을 설립하고 회원의 產物을 처리하

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위생적인 肉類를 소비자에게 저렴한 값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형태가 발전해 나가면 生產調節이 가능하며, 收買, 備蓄, 貯藏, 加工 등을 통해 需給調節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생산자단체에 의해서 肉類流通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되어 나가게 되면 기존의 都賣市場도 이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찾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肉類流通 문제는 빠른 속도로 풀려나가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肉鷄流通은 縱的 統合形態(vertical integration type)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肉鷄는 좁은 면적 위에서 단기 대량사육이 용이하여 過剩・過少生產의 폭이 매우 심할 수 있기 때문에 危險을 줄이기 위해서는 契約生產 내지 縱的 統合生產이 필요하며 加工이 발전하게 되면 加工原料가 연중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縱的 統合은 주로 配合飼料工場이 대량생산에 임하거나 연쇄점을 가지고 있는 대량 소매상이나 도매상이 생산자와 契約生產 또는 직접 농장을 운영하거나 할 것이다. 생산과 유통 및 판매가 縱的 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추론이다. 그럼으로써 생산과 공급의 안정 그리고 가격의 안정과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縱的 統合으로부터 예상되는 문제의 하나는 도시의 大資本家가 配合飼料工場과 돼지 및 獐의 대량생산, 가공, 판매 등 모두를 통합하여 대규모의 유리성을 살리기 위해서 규모를 계속 늘려 나간다고 하면 농촌에 있는 零細養畜家나 副業畜產農家の 소득원에 위협이 되리라는 사실이다. 畜產으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소득이 농촌 아닌 도시 대자본가에게 돌아간다면 농촌의 앞날은 매우 어두워 질 것이다. 이러한 富의 頂층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畜種別 효율적인 경제규모 내지 適正規模를 설정하고 대량사육을 금지시키는 조치도 바람직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縱的인 統合形態를 배격하거나 억제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縱의 統合形態는 생산과 가격의 안정 그리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小賣段階에서의 각종 유통부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소매단계에서의 유통 부조리는 근본적으로 정육점의 零細性에서 생겨난다. 따라서 정육점의 영세성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단위를 키울 수 있다면 肉質이나 무게를 속인다든지 脫稅나 輸入肉이 韓牛肉化 되는 등 각종 부조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만을 파는 소규모 정육점을 축산물 종합판매점 또는 종합식품점으로 유도시켜 닭고기와 계란, 우유, 통조림, 수산물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케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슈퍼마켓이나 연쇄점 등에 컷트포장육이나 精肉 같은 것을 공급하여 이들로 하여금 고객을 끌어들이는 誘引品目으로 삼게 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경쟁토록 새로운 바람을 불려 일으켜야 할 것이다.

價格安定政策

國民經濟가 발전하여 소득이 증가해 감에 따라 畜產物消費가 늘고 식품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需要의 증가에 따라 生產供給量과 輸入의 量이 늘어나고, 축산물이 필수품화되면서 적은 需給의 불균형에도 가격변동의 폭이 커진다. 價格의 季節變動과 週期變動의 폭이 커짐에 따라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까지도 가격안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生產者保護下位價格과 消費者保護上位價格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 한우생산자 보호가격은 生產費 벌크 라인(bulk line) 85%에다가 적정 이윤과 서울 도매시장까지의 유통비용을 더한 선에다 정해야 하고 돼지생산자 보호가격은 평균생산비 선에다가 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쇠고기 생산은 만성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단기 대량 사육이 어렵기 때문에 생산의 유효성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으며, 돼지는 단기 대량생산이 용이하여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한 생산규모를 줄이지 않을 것이므로 過剩生產의 우려가 커서 損失의 폭을 줄이는 보장만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자 보호가격은 가격자율화를 전제로 했을 때의 지난 최근 3개년의 季節變動 振幅에다가 생산자 보호가격을 가산한 수준이면 될 것이다.

서울시 3개 都賣市場의 枝肉 kg 당 평균 가격이 소의 경우 1개월 이상 생산자 보호가격을 하회하면 수매하고, 돼지의 경우 2주 이상 하회하면 역시 수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都賣市場의 기준가격이 소 돼지 다같이 2주 이상 소비자 보호가격을 상회하면 備蓄物量을 방출하거나 절대필요량을 輸入하여 시중에 방출해야 할 것이다.

收買와 放出은 가능한 한 都賣市場에서 公開操作에 의해야 할 것이나 輸入肉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國內產과 격리시켜 가격을 차별해야 할 것이다. 收買・放出業務는 畜協으로 하여금 담당케 하며 운영자금은 畜產振興基金에서 조달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육류 가운데서도 肉鷄를 수매하고 방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기 대량생산이 매우 용이하여 설불리 정부가 肉鷄市場에 개입하다가

는 오히려 생산과 가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생산자 조합이나 단체가 자체내에서 사전적으로 생산을 조절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으나 만일 이것이 가능하지 못하여 시장가격이 폭락한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주의 해야 할 것은 생산자 보호선인 收買가격을 평균 생산비 아래에 둑어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수매가격이 적정이윤을 보장하게 되면 불황을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장기화시키게 될 것이다.

肉鷄價格이 상승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될 필요성은 크지 않겠지만 만일 육계가격이 너무 상승하게 되면 비축된 육계를 방출하는 것은 옳은 政策手段이다.

맺는 말

流通은 生產과 소비로 연결시켜주는 橋梁이요

경제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血管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과 소비의 발전에 따르지 못한 우리 나라의 肉類流通으로 인하여 畜產業界가 어려운 시련 속에 놓여 있다. 그러나 개선의 방향을 바로잡아 꾸준하게 노력해 나간다면 문제는 시간일 뿐이다.

또한 副業畜產이 지배적일 때는 가격 정책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專業 내지 企業養畜家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 못지 않게 價格支持 내지 安定化政策이 중요하게 부각될 뿐만 아니라 축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畜政의 중심과제를 價格安定에 두고 합리적인 정책수단을 계속 개발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 大韓養豚協會와 大邱養豚協會(1981. 9. 20日附로 養豚專門協同組合이 됨)의 한결같은 주장이며, 畜產物衛生検査所 立會下에 수행한 實驗結果를 제시하고 있음.